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8월 12일

HANA Global Weekly



하나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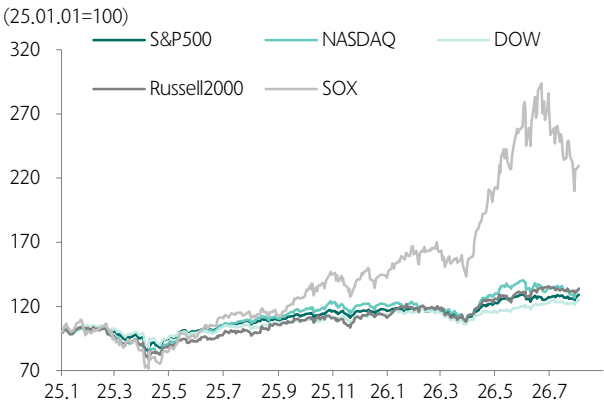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대형주별 개별 이슈와 옵션 수급이 맞물리며 혼조세를 보였으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연준 의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반등이 이어지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음
- 하지만 예상 밖의 고용 감소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성이 주춤하게 되었고, 미 국채금리도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비메모리 반도체주가 반등하며 기술주 전반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음

종가 기준일: 2026.08.10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7,753.1	(0.1)	2.0	2.4	13.3
	NASDAQ	26,605.4	(0.3)	2.7	1.2	14.5
	DOW	53,976.0	(0.1)	1.5	2.5	12.3
	Russell2000	3,017.4	(0.6)	1.2	1.3	21.6
	SOX	11,993.9	(2.9)	4.9	(7.5)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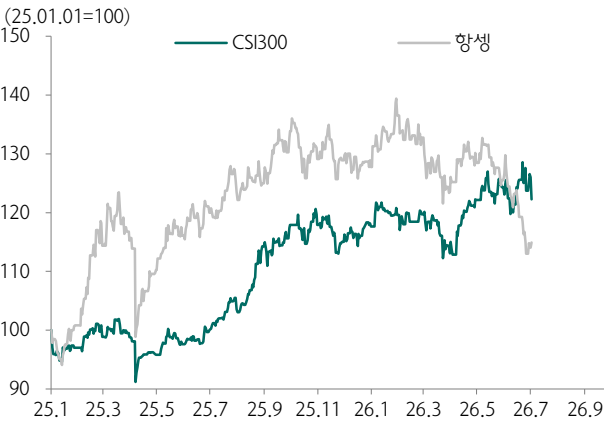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중국 증시의 디레버리징 충격은 이미 최악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 7월 이후 지수형 ETF 자금의 순매수 전환을 감안할 때 중국 신용 잔고의 6월 고점 대비 낙폭과 신용 매수의 거래 대금 비중 낙폭이 충분해 보이며, 신용 감소가 4개 업종에만 집중되면서 시장 전반의 충격 확산과 후유증도 제한적
- 다만 테크주 반등의 내부적인 동력 확보는 시간 필요. 단기 수급 관점에서 ETF 순매수 유지와 120일선 회복 여부가 중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상반기 급락한 초과 유동성 지표의 반등 여부가 관건. 하반기 테크주 실적을 지지할 수 있는 8월 실적 시즌과 핵심 산업 지표에 대한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종가 기준일 : 2026.08.07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694.4	0.9	2.3	(2.0)	19.3
	항셱	25,668.0	0.5	(0.8)	9.2	28.0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8/20	03:00	★★★	7월 FOMC에서 3명의 위원이 25bp 인상을 주장
2026 북경 로봇 박람회	8/19~23	19:00	★★	휴머노이드·피지컬 AI·산업용 로봇 등 공개
스페이스 X, 2차 보호예수 해제일	8/20	22:30	★★	보호예수 대상 주식의 추가 7% 매각 가능
미국 옵션만기일	8/21	22:30	★★	장중 및 종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KBWB (Invesco KBW Bank ETF)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DRAM (Roundhill Memory ETF)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 Index Fund)	XBI (SPDR S&P Biotech ETF)

투자 유망 종목

알파벳 (GOOGL.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AMD (AMD.US)	캐터필러 (CAT.U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유나이티드 렌탈스 (URI.US)	블룸 에너지 (BE.US)	알리바바 (BABA.US)	북방화창 (002371.SZ)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코어워브	CRWV	8월 11일 장후	FY26 2분기 매출 25.43억, EPS -1.28 달러
루멘텀 홀딩스	LITE	8월 11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9.86억, EPS 2.97 달러
네비우스 그룹	NBIS	8월 12일 장전	FY26 4분기 매출 5.83억, EPS -0.51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스페이스X(SPCX.US)	기업향 스타링크 성장과 AI 인프라가 이끈 서프라이즈
AI & 클라우드	클라우드 Big 3, 매출 구도 변화와 AI 수익화 점검
AMD(AMD.US)	FY 2Q26 Review: 성장성 이상 없음
미국 이슈 코멘트	초대형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선호 강화 예상
미국 태양광	[Section 232 시사점] 명단에 없는게 명단
지멘스(SIE.GR)	5년간 AC+DC의 하이브리드 배전 인프라 전망
캠브리콘(688256.CH)	올해 실적 최대 변수는 공급망/메모리로 인한 출하 지연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7	2.4	4.3	22.6	13.7	0.0	0.2	0.5	1.5	1.2	17.2	17.2	17.6	18.0	18.9	19.7	14.9	3.3	3.3	3.3	3.3	3.1	3.4	2.3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정보기술, 건강관리
에너지	1.8	8.3	4.1	35.9	28.6	0.1	0.3	0.1	2.6	2.7	11.9	12.2	11.7	12.2	13.3	17.4	9.0	1.8	1.9	1.8	1.8	1.6	2.1	1.4	
소재	4.7	7.8	-0.2	29.0	13.6	0.0	-0.0	-0.0	1.8	1.1	15.4	14.8	14.3	15.7	16.5	17.8	13.1	2.3	2.2	2.1	2.4	1.9	2.5	1.6	
산업재	0.1	3.3	2.9	21.3	16.3	0.0	0.2	0.3	0.7	0.6	22.1	22.3	22.3	23.2	21.5	24.6	15.8	4.1	4.1	4.1	4.1	3.6	4.2	2.5	
자유소비재	1.1	4.5	0.7	6.9	0.1	0.0	0.3	0.4	0.5	0.4	20.0	20.0	20.5	21.3	21.1	22.9	16.3	3.3	3.3	3.3	3.4	3.4	3.8	2.8	
필수소비재	0.0	1.4	0.6	3.8	6.0	0.0	0.1	0.1	0.2	0.1	19.6	19.6	19.5	19.5	19.8	21.2	17.1	4.4	4.4	4.4	4.3	4.1	4.6	3.5	
건강관리	3.9	4.2	13.6	23.0	6.0	0.0	0.1	0.2	0.3	0.2	18.4	18.1	18.3	16.9	16.0	20.2	15.7	4.2	4.1	4.1	3.7	3.5	4.3	3.5	
금융	-0.1	3.7	11.1	18.5	9.9	0.0	0.2	0.3	1.1	0.7	13.4	13.5	13.3	12.5	13.3	13.7	9.8	1.8	1.8	1.8	1.7	1.7	1.9	1.2	
정보기술	0.8	0.6	5.5	39.7	28.1	0.1	0.4	1.0	2.9	2.3	18.3	18.3	19.5	21.3	27.7	29.6	16.9	7.1	7.1	7.4	7.6	7.6	8.5	5.4	
커뮤니케이션	-1.9	-0.9	-6.9	11.0	0.0	-0.0	0.3	0.3	1.0	0.9	17.2	17.5	18.4	19.3	18.9	21.2	15.6	3.3	3.4	3.6	3.8	3.7	4.0	2.3	
유틸리티	-1.7	-3.3	-4.1	6.8	3.5	0.0	0.1	-0.0	0.4	0.2	16.1	16.3	16.8	16.7	15.9	17.5	12.5	1.8	1.9	1.9	1.9	1.8	2.0	1.4	
미국	2.2	2.5	5.2	21.4	13.3	0.0	0.2	0.4	1.2	0.9	20.2	20.2	20.5	20.9	22.1	22.9	17.2	4.7	4.6	4.7	4.6	4.5	4.8	3.3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정보기술, 건강관리
에너지	1.5	8.2	6.6	40.1	32.3	0.1	0.2	0.2	2.2	2.3	14.0	14.4	13.9	14.4	15.3	21.1	10.3	2.3	2.3	2.2	2.2	1.9	2.6	1.7	
소재	7.5	7.1	1.7	25.0	13.1	-0.0	-0.0	0.0	1.8	1.1	16.9	16.1	15.7	17.1	19.4	21.5	15.2	2.8	2.6	2.6	3.0	2.6	3.3	2.0	
산업재	0.8	1.2	5.3	20.8	18.3	0.0	0.1	0.2	0.5	0.4	26.1	26.5	26.5	26.3	24.7	27.9	17.7	6.6	6.7	6.6	6.5	6.0	6.8	4.2	
자유소비재	0.4	3.4	-0.5	9.3	2.2	0.0	0.3	0.4	0.8	0.6	23.2	23.2	24.4	25.9	26.4	30.1	21.0	6.2	6.1	6.4	6.7	7.4	8.8	5.9	
필수소비재	0.1	1.0	-0.9	4.4	8.9	0.0	0.0	0.1	0.2	0.2	21.9	22.0	21.8	22.3	22.1	24.0	17.5	6.3	6.2	6.2	6.2	6.1	6.6	4.7	
건강관리	4.0	4.5	17.4	28.2	8.1	0.0	0.1	0.2	0.3	0.3	19.1	18.7	19.1	17.2	16.2	20.3	15.8	4.8	4.7	4.7	4.2	3.9	4.9	3.8	
금융	0.8	3.3	12.6	14.7	7.0	0.0	0.2	0.3	1.0	0.6	15.5	15.6	15.5	14.4	15.9	17.0	11.7	2.3	2.3	2.2	2.1	2.2	2.3	1.5	
정보기술	4.7	2.9	7.0	30.5	22.5	0.0	0.2	0.6	1.9	1.3	23.0	22.8	23.1	24.8	30.5	32.3	19.5	9.7	9.6	9.5	9.7	10.6	11.5	7.4	
커뮤니케이션	-1.9	-1.7	-8.3	17.1	2.2	-0.0	0.4	0.4	1.1	1.1	17.6	18.1	19.4	20.3	18.9	22.4	15.8	3.8	4.0	4.3	4.6	4.3	4.8	2.8	
유틸리티	-3.0	-5.0	-3.6	0.2	0.9	0.0	0.1	0.2	0.5	0.3	17.5	17.8	18.4	18.7	18.8	20.0	14.1	2.0	2.0	2.1	2.1	2.1	2.3	1.5	
일본	3.7	0.9	6.9	37.4	20.7	0.0	0.2	0.7	1.5	1.1	16.8	16.3	17.2	18.0	16.4	19.0	12.3	1.9	1.8	1.9	1.9	1.5	2.0	1.1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0.5	4.3	-3.2	52.5	14.2	0.5	0.2	-0.1	6.2	3.8	8.5	8.6	8.1	8.7	11.4	13.9	6.2	0.9	0.8	0.8	0.9	0.6	1.1	0.5	
소재	7.8	-0.4	-7.2	34.1	20.1	0.1	0.0	0.1	0.4	0.6	16.7	16.0	17.0	18.7	13.4	19.3	10.4	1.4	1.3	1.4	1.4	1.0	1.6	0.8	
산업재	6.5	7.8	1.5	39.0	20.3	0.1	0.2	0.4	1.0	0.9	18.5	18.2	18.2	20.2	16.9	22.2	11.6	2.1	2.1	2.0	2.2	1.7	2.3	1.2	
자유소비재	3.9	6.2	12.2	20.6	8.1	0.1	0.3	1.0	1.2	0.4	16.6	16.1	16.5	17.9	17.3	18.3	10.1	1.4	1.4	1.4	1.4	1.3	1.6	1.0	
필수소비재	4.8	7.2	12.2	12.3	7.8	0.0	0.1	0.2	0.6	0.2	21.5	20.5	20.5	20.8	21.9	22.9	18.2	2.2	2.1	2.1	1.9	1.9	2.2	1.6	
건강관리	6.3	6.2	4.6	16.6	5.8	0.1	0.2	-0.3	0.4	0.2	18.3	17.4	17.7	16.6	17.0	23.4	15.2	2.2	2.0	2.1	2.1	2.0	2.5	1.8	
금융	-0.2	0.2	20.4	57.4	35.8	0.1	0.2	0.6	2.0	1.1	13.7	13.5	13.8	12.4	11.7	14.8	8.5	1.4	1.4	1.4	1.3	1.1	1.5	0.7	
정보기술	3.5	-11.0	7.7	86.9	47.4	0.0	0.1	1.7	2.8	2.6	19.0	18.7	21.9	25.6	22.0	28.4	16.5	4.0	3.9	4.5	3.9	2.5	5.2	1.8	
커뮤니케이션	2.8	-0.3	0.2	1.0	3.7	-0.4	-0.5	0.6	0.3	0.7	21.2	18.6	19.0	23.0	22.5	28.3	16.3	2.4	2.1	2.2	2.4	3.2	3.4	1.5	
유틸리티	-2.5	-3.5	-4.9	22.0	-0.2	0.1	0.2	0.4	-0.0	1.4	11.7	11.8	12.2	12.7	9.4	16.0	6.2	0.8	0.8	0.8	0.9	0.7	1.0	0.5	
유럽	1.3	2.8	8.3	21.0	11.7	0.0	0.1	0.2	0.9	0.7	15.5	15.4	15.3	14.9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산업재, 금융, 소재
에너지	-2.2	9.2	3.9	37.6	32.2	-0.1	0.3	0.4	4.1	4.0	9.0	9.0	8.6	9.2	10.6	13.1	7.6	1.4	1.4	1.3	1.4	1.3	1.7	1.0	
소재	3.7	5.4	4.8	27.4	16.9	0.0	-0.0	0.3	1.3	0.9	16.6	16.4	15.7	16.9	16.7	17.9	12.5	2.1	2.0	1.9	2.0	1.6	2.1	1.4	
산업재	1.5	4.4	5.8	18.8	13.3	0.0	0.1	0.2	0.6	0.4	22.4	22.6	22.0	22.4	21.4	24.2	15.5	4.1	4.2	4.0	4.0	3.6	4.2	2.6	
자유소비재	0.9	3.2	7.3	2.3	-8.0	-0.0	-0.0	-0.0	0.1	-0.3	15.8	15.7	15.3	14.5	15.6	17.3	10.9	1.7	1.7	1.6	1.6	1.6	1.9	1.4	
필수소비재	-0.9	-0.2	5.9	4.8	2.9	-0.0	0.1	0.1	0.4	0.2	15.6	15.5	15.7	14.8	15.7	17.2	14.6	3.1	3.0	3.1	2.9	2.9	3.3	2.6	
건강관리	3.0	0.5	7.6	18.0	1.7	0.0	0.0	0.2	0.2	0.2	15.8	15.6	15.8	15.3	14.0	18.8	13.1	3.3	3.3	3.4	3.2	2.8	3.8	2.6	
금융	0.5	4.7	16.2	28.1	15.9	0.0	0.1	0.4	1.3	0.9	11.9	12.0	11.6	10.8	11.1	12.0	7.6	1.7	1.7	1.6	1.5	1.4	1.7	0.9	
정보기술	5.3	-1.4	9.2	53.3	35.5	0.0	0.3	0.5	1.0	0.9	28.3	28.1	31.3	30.1	26.0	34.4	19.0	6.1	6.0	6.3	6.0	4.7	6.8	3.5	
커뮤니케이션	0.7	2.3	0.4	-7.5	0.2	0.0	0.1	0.0	0.5	0.2	15.7	15.4	15.5	15.6	18.4	19.4	12.6	2.1	2.1	2.0	2.1	2.1	2.2	1.2	
유틸리티	-0.5	-2.0	-0.2	26.1	12.8	0.0	0.1	-0.0	0.6	0.3	15.4	15.3	15.7	15.4	13.4	16.2	11.1	2.0	1.9	2.0	1.9	1.6	2.0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1.1	-1.2	-2.4	33.2	18.9	0.1	0.7	1.4	4.3	3.7	9.9	10.0	10.8	11.9	13.1	14.0	9.6	1.9	1.9	2.0	2.1	1.7	2.2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에너지, 금융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에너지	1.7	5.3	-6.0	14.3	7.0	0.1	0.4	0.1	2.5	2.8	8.7	8.7	8.7	9.4	9.9	11.4	7.3	1.2	1.2	1.2	1.3	1.2	1.4	1.0	
소재	6.6	11.1	-5.7	34.1	6.0	0.0	0.0	0.0	3.2	2.0	11.4	10.8	10.4	12.2	13.5	14.8	10.0	1.8	1.7	1.7	2.0	1.5	2.2	1.0	
산업재	2.0	1.0	-11.0	24.9	14.0	0.0	0.5	1.7	3.0	3.0	11.7	11.6	12.4	16.6	14.7	17.4	10.8	2.0	2.0	2.1	2.5	1.7	2.5	0.7	
자유소비재	1.2	9.4	-4.6	-1.1	-7.0	0.0	0.2	0.0	-0.6	-0.1	13.6	13.6	12.9	14.3	13.0	16.0	10.7	1.6	1.6	1.5	1.8	1.8	2.2	1.4	
필수소비재	0.5	3.2	-4.2	-4.4	-3.3	0.0	0.1	0.1	-0.0	0.0	17.8	17.8	17.5	19.0	18.5	20.7	16.9	3.0	3.0	3.0	3.2	3.0	3.3	2.4	
건강관리	6.4	9.2	8.5	5.2	9.3	0.1	0.1	0.1	0.3	0.3	27.3	26.4	26.2	25.7	28.6	30.3	22.7	3.6	3.4	3.4	3.4	3.4	3.9	2.6	
금융	-0.4	2.0	3.2	11.6	5.7	0.1	0.2	0.2	1.1	0.7	9.3	9.4	9.3	9.1	9.3	9.9	7.1	1.2	1.2	1.1	1.1	1.1	1.2	0.9	
정보기술	1.2	-8.5	-2.2	109.3	63.4	0.2	1.4	3.0	8.9	7.8	8.3	8.4	10.4	11.8	16.0	18.7	7.8	3.2	3.2	3.9	4.2	2.8	4.8	2.1	
커뮤니케이션	-1.1	2.3	-0.9	-9.3	-14.0	0.0	0.0	0.1	0.8	0.2	13.9	14.1	13.7	14.0	17.3	19.1	12.8	2.2	2.2	2.2	2.1	2.9	3.0	1.9	
유틸리티	-2.0	-1.6	-9.0	4.9	1.8	-0.0	0.0	-0.5	0.0	-0.6	12.2	12.3	12.3	12.5	11.6	13.6	9.8	1.3	1.3	1.3	1.4	1.1	1.4	1.0	
중국	1.4	6.4	-3.8	-2.0	-6.0	0.0	0.2	0.1	0.5	0.3	10.8	10.8	10.5	11.4	11.8	13.6	8.0	1.3	1.3	1.2	1.3	1.4	1.6	0.9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건강관리, 금융, 자유소비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에너지	2.4	8.6	-6.4	20.3	13.5	-0.0	0.0	0.2	1.9	2.1	9.2	9.0	8.6	10.1	9.4	12.2	5.7	0.9	0.9	0.9	1.0	0.9	1.1	0.7	
소재	10.5	20.2	-10.3	45.6	-2.0	0.0	0.1	0.2	3.9	2.6	10.2	9.4	8.7	11.6	11.8	16.8	8.5	1.8	1.7	1.6	2.1	1.5	2.6	0.9	
산업재	1.1	7.2	-6.4	10.9	5.0	0.0	0.2	0.2	-0.1	0.3	11.7	11.8	11.3	13.1	10.6	13.2	6.7	1.2	1.2	1.2	1.3	1.0	1.4	0.7	
자유소비재	0.6	11.8	-6.7	-7.8	-11.8	0.0	0.3	-0.0	-0.9	-0.3	13.2	13.4	12.4	14.1	13.0	17.1	10.1	1.5	1.6	1.4	1.8	2.0	2.5	1.2	
필수소비재	1.2	8.6	-7.1	-15.0	-10.2	0.0	0.0	0.1	-0.0	-0.1	14.3	14.6	13.6	16.1	17.3	20.6	12.8	2.3	2.4	2.2	2.7	3.0	3.5	2.1	
건강관리	9.3	11.4	8.5	2.9	13.9	0.1	0.2	0.1	0.6	0.5	25.6	24.3	24.4	24.8	30.0	32.2	19.0	3.1	2.9	2.9	2.9	3.2	3.6	1.8	
금융	-1.0	5.9	-1.9	4.2	1.9	0.0	0.3	0.2	2.2	1.1	5.7	5.8	5.5	6.0	6.3	6.5	3.6	0.6	0.6	0.6	0.6	0.6	0.7	0.4	
정보기술	4.6	-7.2	-1.9	4.1	6.4	0.0	0.1	0.5	0.1	0.1	24.4	23.4	27.0	28.8	23.8	30.3	12.8	3.0	2.9	3.3	3.2	3.2	4.0	1.3	
커뮤니케이션	-1.2	3.4	-0.5	-14.6	-19.3	0.0	0.0	0.1	0.8	0.2	12.8	13.0	12.4	12.8	16.8	19.7	11.2	2.0	2.1	2.0	1.9	3.1	3.2	1.7	
유틸리티	-1.8	4.7	-9.3	-8.1	-5.5	0.0	0.0	0.0	-0.9	-0.7	9.7	10.0	9.4	10.9	9.7	11.0	6.5	0.9	0.9	0.8	1.0	1.0	1.1	0.7	
인도	-0.5	1.7	1.8	4.7	-2.5	0.0	0.1	0.2	0.5	0.4	20.3	20.3	20.3	20.6	21.8	24.5	18.7	2.9	3.0	2.9	3.0	3.3	4.0	2.8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금융,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1.8	1.0	-6.7	-1.2	-13.0	-0.0	-0.1	-0.6	-0.3	-0.6	14.7	14.4	14.4	14.1	14.4	24.8	12.6	1.5	1.5	1.5	1.6	1.6	2.9	1.4	
소재	1.2	3.5	0.7	15.8	7.1	0.0	0.2	1.2	1.7	1.9	16.9	16.8	16.9	20.8	20.8	24.9	16.4	2.6	2.6	2.5	2.9	2.8	3.1	2.3	
산업재	1.2	0.9	1.1	18.2	10.7	-0.0	0.4	0.4	0.6	0.4	31.2	30.8	35.7	35.1	32.9	39.6	27.1	6.8	6.7	6.8	6.8	6.7	8.5	4.9	
자유소비재	1.0	7.8	8.9	14.8	3.8	0.0	0.0	0.1	0.1	0.1	33.0	32.9	30.8	30.1	30.1	35.8	24.9	5.4	5.4	5.1	4.9	5.6	7.1	4.1	
필수소비재	0.1	-0.1	-4.2	-5.1	-7.2	0.0	-0.1	0.0	0.3	0.0	40.6	40.7	39.5	42.9	48.9	56.5	28.1	8.8	8.8	8.8	9.5	11.1	12.1	8.2	
건강관리	-0.8	1.0	6.4	15.0	12.4	0.0	-0.0	-0.1	0.0	-0.1	34.7	35.1	34.2	31.8	30.8	35.2	22.1	4.8	4.8	4.7	4.6	4.6	5.5	3.9	
금융	-0.9	-1.1	2.8	-0.1	-5.6	-5.5	-5.4	-5.4	-5.1	-5.2	15.6	15.8	16.1	15.5	17.1	22.1	14.6	2.1	2.1	2.1	2.1	2.6	3.3	2.0	
정보기술	0.4	11.9	3.7	-12.5	-20.5	0.0	0.0	-0.1	0.6	0.4	17.1	17.0	15.3	16.3	21.8	31.6	14.1	5.1	5.1	4.4	4.7	6.1	9.7	4.0	
커뮤니케이션	-1.4	-0.1	6.8	7.3	-6.4	-0.0	0.0	0.5	1.2	0.8	29.6	30.0	29.8	31.5	42.1	82.9	28.5	5.9	6.0	5.9	6.6	8.2	19.6	4.6	
유틸리티	-1.5	-2.2	-11.7	5.1	6.4	-0.1	-0.0	0.0	0.0	0.1	15.8	15.8	16.1	17.7	15.3	22.0	12.2	2.0	2.0	2.1	2.3	2.1	3.0	1.6	
브라질	-3.5	-1.8	-9.2	27.0	10.6	0.0	0.1	-0.2	2.9	2.9	8.2	8.5	8.4	8.8	8.4	10.9	6.8	1.6	1.6	1.6	1.6	1.3	1.8	1.1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소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0.5	7.3	-10.0	53.5	52.0	0.3767	0.8	-0.8	8.3	10.1	4.6	4.8	4.6	5.1	5.1	7.6	4.0	1.1	1.1	1.1	1.1	0.9	4.6	0.7	
소재	0.0	3.7	-8.9	36.0	11.7	-0.0832	-0.2	-0.4	0.9	0.9	8.0	8.0	7.7	8.7	6.3	9.1	5.0	1.4	1.4	1.3	1.6	0.9	1.7	0.8	
산업재	-1.7	1.3	-4.1	22.7	4.3	0.0090	0.1	-0.2	1.0	0.8	16.9	17.1	16.9	16.6	16.0	24.2	15.0	2.2	2.2	2.0	1.8	1.7	3.5	1.4	
자유소비재	-5.3	1.4	-3.6	75.9	48.1	0.2902	1.0	1.5	4.9	4.5	9.5	10.1	10.1	11.0	9.6	14.2	6.6	1.7	1.8	1.7	1.8	1.1	1.9	0.8	
필수소비재	-2.7	1.1	-12.0	13.9	3.0	-0.0682	-0.0	-0.4	-0.4	0.3	14.9	14.7	14.2	15.3	11.9	18.5	10.7	2.5	2.5	2.4	2.6	2.0	2.8	1.7	
건강관리	-1.2	-5.5	-14.9	-0.3	-10.1	0.0282	0.1	-0.3	1.1	0.4	13.8	14.0	14.8	14.7	16.4	24.3	10.8	3.3	3.4	3.5	3.6	2.7	4.5	0.7	
금융	-4.4	-5.3	-7.0	17.8	0.9	0.0094	0.1	-0.1	2.1	1.5	8.6	9.0	9.1	9.0	8.8	11.2	6.6	1.8	1.9	2.0	1.9	1.7	2.3	1.1	
정보기술	0.0	0.0	0.0	0.0	0.0	0.0000	0.0	0.0	0.0	0.0	17.9	18.0	18.3	16.9	24.7	26.6	15.0	3.5	3.5	3.5	3.4	4.5	5.0	2.3	
커뮤니케이션	-2.0	-15.6	-21.6	-3.2	-0.7	0.0047	-0.1	-0.2	2.2	1.7	10.3	10.5	12.1	12.3	13.8	15.7	10.3	1.7	1.7	2.0	2.0	1.9	2.5	1.0	
유틸리티	-4.8	-8.6	-15.1	34.0	9.2	-0.0623	-0.3	-0.9	2.4	1.0	12.3	12.5	12.7	12.5	12.6	14.5	8.6	1.6	1.6	1.7	1.6	1.2	1.8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6	2.9	5.3	21.4	13.0	0.0	0.2	0.4	1.1	0.8	19.0	19.0	19.2	19.4	20.0	20.7	15.5	3.7	3.7	3.6	3.6	3.4	3.7	2.5	
대형주	0.6	2.8	5.4	22.1	13.1	0.0	0.2	0.4	1.2	0.9	19.3	19.3	19.5	19.7	20.5	21.4	15.8	4.0	4.0	4.0	3.9	3.7	4.1	2.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6	3.2	4.5	17.1	12.5	0.0	0.1	0.3	0.8	0.5	17.5	17.5	17.4	17.6	17.5	18.1	13.9	2.4	2.4	2.4	2.4	2.2	2.4	1.7	
소형주	0.1	2.0	3.2	26.3	16.3	0.0	0.1	0.3	1.3	0.9	16.7	16.7	16.7	17.1	16.9	18.0	13.2	1.3	1.4	1.7	1.7	1.6	1.8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가치
성장	0.5	1.5	3.4	18.5	10.2	0.0	0.2	0.4	1.0	0.7	24.6	24.6	25.7	26.1	27.6	28.8	21.9	6.6	6.6	6.8	6.7	6.8	7.2	4.8	
가치	0.7	4.3	7.2	24.1	16.0	0.0	0.1	0.4	1.2	1.0	15.5	15.5	15.2	15.5	15.3	16.6	11.7	2.5	2.5	2.5	2.5	2.1	2.5	1.6	
미국	2.2	2.5	5.2	21.4	13.3	0.0	0.2	0.4	1.2	0.9	20.2	20.2	20.5	20.9	22.1	22.9	17.2	4.7	4.6	4.7	4.6	4.5	4.8	3.3	
대형주	0.5	2.5	5.1	22.1	13.3	0.0	0.2	0.4	1.3	0.9	20.5	20.5	20.8	21.2	22.6	23.6	17.6	5.1	5.0	5.1	5.0	4.9	5.2	3.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1	2.6	5.5	17.1	13.0	0.0	0.1	0.3	0.9	0.6	18.8	18.8	18.7	19.0	19.2	20.2	14.9	3.0	3.0	2.9	3.0	2.8	3.1	2.2	
소형주	-0.5	1.1	4.2	32.0	19.3	0.0	0.3	0.6	1.8	1.3	17.1	17.2	17.8	18.1	18.4	21.1	14.8	2.1	2.1	2.1	2.1	1.8	2.2	1.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0.1	0.9	3.1	19.2	10.1	0.0	0.3	0.3	1.1	0.8	26.3	26.3	27.8	27.9	30.2	31.5	23.0	8.9	8.9	9.5	9.2	9.6	10.4	6.3	
가치	0.8	4.2	7.3	23.2	16.5	0.0	0.1	0.5	1.2	1.1	16.5	16.5	16.2	16.8	16.8	18.1	13.1	3.2	3.1	3.1	3.1	2.8	3.2	2.1	
일본	3.7	0.9	6.9	37.4	20.7	0.0	0.2	0.7	1.5	1.1	16.8	16.3	17.2	18.0	16.4	19.0	12.3	1.9	1.8	1.9	1.9	1.5	2.0	1.1	
대형주	3.5	0.3	8.3	40.5	22.0	0.0	0.2	0.7	1.5	1.1	17.2	16.8	17.8	18.4	16.5	19.4	12.3	2.1	2.0	2.1	2.0	1.7	2.2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4.4	3.0	3.1	29.2	17.4	0.1	0.2	0.7	1.7	1.1	15.4	15.1	15.5	17.0	16.1	18.7	11.4	1.4	1.4	1.4	1.6	1.3	1.7	1.0	
소형주	1.0	1.6	4.2	22.9	18.1	0.1	0.3	0.6	1.1	1.0	15.3	15.4	15.7	16.1	14.8	17.3	11.6	1.4	1.4	1.4	1.4	1.2	1.4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대형주
성장	4.7	0.1	4.0	33.7	20.6	0.0	0.2	1.0	1.4	1.4	20.6	19.8	21.4	24.8	22.0	25.7	16.4	3.2	3.0	3.3	3.2	2.8	3.5	1.9	
가치	2.7	1.8	9.8	41.1	20.9	0.0	0.2	0.6	1.6	0.9	14.4	14.0	14.4	14.2	13.1	15.7	9.9	1.3	1.3	1.3	1.3	1.1	1.4	0.8	
유럽	1.3	2.8	8.3	21.0	11.7	0.0	0.1	0.2	0.9	0.7	15.5	15.4	15.3	14.9	14.9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대형주	0.5	2.8	8.7	21.7	11.6	0.0	0.1	0.3	0.9	0.7	15.5	15.5	15.4	15.0	15.0	16.6	11.6	2.4	2.4	2.4	2.3	2.1	2.4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성장
중형주	0.8	3.0	5.9	17.8	11.9	0.0	0.1	0.1	0.7	0.4	15.2	15.0	14.9	14.4	14.4	15.2	12.1	2.0	2.0	2.0	1.9	1.7	2.0	1.4	
소형주	1.8	5.6	2.0	10.8	7.3	0.0	0.1	0.1	0.5	0.2	14.6	14.5	14.0	14.5	14.1	14.9	10.6	1.6	1.6	1.5	1.5	1.4	1.6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가치
성장	2.8	2.4	7.2	16.8	9.7	0.0	0.1	0.4	0.8	0.6	20.6	20.5	20.6	20.8	20.9	25.1	18.8	3.8	3.7	3.7	3.8	3.7	4.4	3.4	
가치	-0.1	3.3	9.4	25.3	13.7	0.0	0.1	0.3	1.1	0.9	12.4	12.4	12.2	11.8	11.6	13.0	8.6	1.7	1.7	1.7	1.6	1.4	1.7	1.1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10,975.74	11,874.82	11,804.38	13,246.63	0.14	0.16	7,965,712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4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4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27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7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10,176.44	21,342.29	15,587.83	29,734.86	0.06	0.13	17,432,520	
		W.Europe	54.94	(1,384.38)	1,871.70	266.01	0.00	(0.07)	2,165,526	
		Asia Pacific	3,027.05	1,440.08	2,624.05	1,315.54	0.24	0.11	1,374,940	
		선진국 합	24,234.17	33,272.80	31,887.96	44,563.03	0.09	0.12	28,938,698	
	신흥국	GEM	3,981.96	77.49	3,049.87	1,481.73	0.31	0.01	1,394,718	
		Asia ex-JP	4,544.69	6,912.29	5,057.44	7,737.34	0.32	0.47	1,503,792	
		EMEA	134.21	93.93	64.34	39.02	0.28	0.19	50,740	
		LatAm	(14.92)	(225.58)	(8.20)	(188.94)	(0.03)	(0.38)	61,049	
		신흥국 합	8,645.94	6,858.13	8,163.45	9,069.16	0.31	0.24	3,010,298	
채권	선진국	Global	1,953.60	2,399.91	1,078.88	820.78	0.15	0.18	1,335,844	
		NorthAm	18,128.25	15,874.38	15,114.23	12,974.44	0.32	0.28	5,703,014	
		W.Europe	2,768.54	2,995.30	1,147.87	1,302.26	0.14	0.15	2,047,149	
		Asia Pacific	132.83	172.75	260.68	132.35	0.18	0.23	75,584	
		선진국 합	22,983.22	21,442.34	17,601.66	15,229.83	0.25	0.24	9,161,592	
	신흥국	GEM	444.19	485.07	237.18	111.90	0.11	0.12	395,411	
		Asia ex-JP	(645.40)	713.98	(780.89)	821.19	(0.24)	0.28	267,103	
		EMEA	220.64	(5.21)	67.14	(6.48)	0.48	(0.01)	46,851	
		LatAm	83.68	57.45	40.71	51.04	0.49	0.34	17,438	
		신흥국 합	103.12	1,251.28	(435.85)	977.64	0.01	0.18	726,804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선진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

-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 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118.0억달러, +155.9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며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318.9억달러가 순유입.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도 유지되기는 했으나, 순유입 규모가 +81.6억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51.1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176.0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3주 연속 자금 유출 흐름이 지속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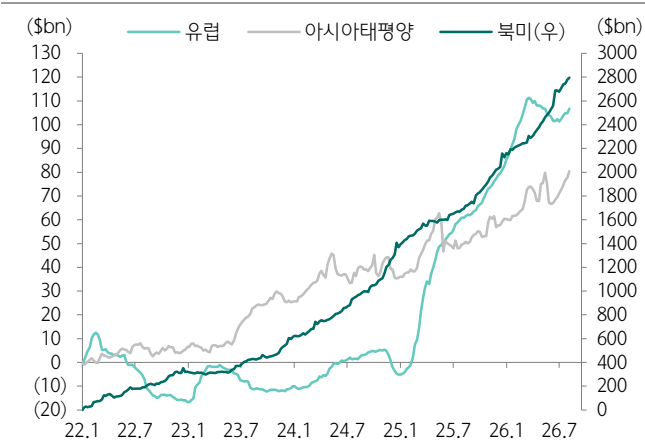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MM)	유입강도 (%)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11,804	8,500	11,344	14,159	3,109,063	0.40
		북미	15,588	37,591	3,615	30,129	11,816,261	0.14
		서유럽	1,872	(16)	963	1,543	656,110	0.30
		아시아 태평양	2,624	1,221	2,023	1,718	1,032,856	0.27
	선진시장 Total		31,888	47,296	17,945	47,550	16,614,291	0.20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3,050	1,586	2,110	2,823	702,119	0.47
		신흥아시아	5,057	22,214	27,438	24,881	1,160,343	0.47
		EMEA	64	9	37	47	17,056	0.40
		남미	(8)	(12)	361	(565)	47,679	(0.02)
	신흥시장 Total		8,163	23,797	29,945	27,187	1,927,197	0.43
	주식 ETF Total		40,051	71,092	47,890	74,737	18,541,488	0.22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1,079	769	1,193	825	223,481	0.49
		북미	15,114	7,572	9,084	11,028	2,819,883	0.54
		서유럽	1,148	704	1,156	1,155	342,651	0.34
		아시아 태평양	261	107	140	119	25,661	1.04
	선진시장 Total		17,602	9,152	11,573	13,127	3,411,676	0.52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237	(456)	(32)	533	76,686	0.31
		신흥아시아	(781)	118	19	270	160,308	(0.49)
		EMEA	67	(34)	(127)	(203)	4,353	1.55
		남미	41	(53)	66	63	7,715	0.53
	신흥시장 Total		(436)	(426)	(74)	663	249,062	(0.18)
	채권 ETF Total		17,166	8,726	11,499	13,790	3,660,739	0.47

주1. 기준일: 26.8.5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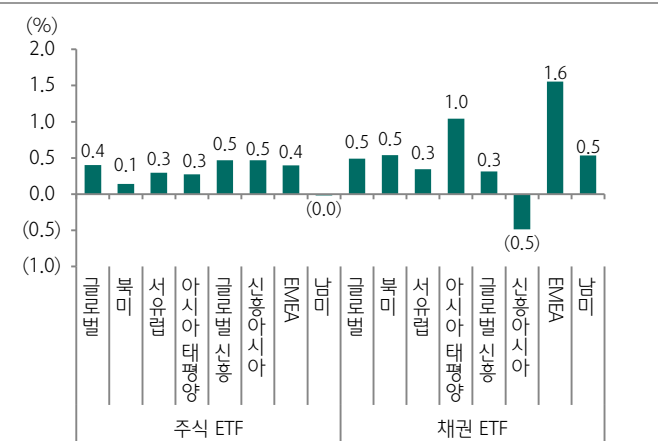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AI 산업 내 수요와 투자의 무게중심 변화 고려. MAGS, IGV/XLK, SMH, PAVE, KBWB, XAR 등 활용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조정 후에 진행되는 단기 반등 기대와는 별개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변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ETF들(IGV/XLK/VGT)과 Hyperscalers 기업들이 포함된 MAGS,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
- Hyperscalers 중심의 자금 조달 수요 및 대형 IB 딜 증가 흐름, 순환매 가능성의 염두 하에 KBWB(대형은행)를, 해킹 이슈들과 함께 AI 및 소프트웨어 내 안정적 수익 기반이 부각되는 CIBR(사이버보안),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모멘텀이 유요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II(산업재),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복 과정에서 무기 재생산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 실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PPA와 XAR(미국방산)/KDEF(한국방산) 등에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
- 현 국면의 특성상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KBWB (Invesco KBW Bank ETF)	미국 은행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2026년 7월 16일	98.37 97.61	-0.77% -2.48%
주식형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생성형 AI 및 기술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ropic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웨어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2026년 7월 16일	83.73 89.11	6.43% 4.72%
주식형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사이버 보안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2026년 7월 16일	91.89 97.85	6.49% 4.78%
주식형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2026년 3월 23일	75.80 85.97	13.42% -1.71%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재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요	2025년 11월 24일	339.12 582.70	71.83% 53.53%
주식형	DRAM (Roundhill Memory ETF)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2026년 6월 22일	80.72 50.60	-37.31% -38.92%
주식형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전력망 및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2026년 7월 16일	177.67 186.43	4.93% 3.23%
주식형	XBI (SPDR S&P Biotech ETF)	바이오 테크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2026년 7월 16일	152.00 157.37	3.53% 1.83%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CSCI Index 적용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미 고용 부진으로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 미 7월 CPI 예상치 하회할 경우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 기대

• 글로벌 증시는 중동 불확실성 지속에도 미 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되면서 미 국채금리, 달러화 상승 압력 완화된 영향에 상승 흐름. 실적 시즌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앞두고 고용, 물가지표로 이동. 이번주 미 7월 CPI 예상치(YoY +3.4%, 전월 +3.5%) 하회할 경우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될 전망. 최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빅테크 자본지출 확대 기조 유지되고 있어 AI 성장성과 AI 인프라 중심의 실적 모멘텀 유효하다는 판단. 투자유망종목은 알리바바(BABA.US), 북방화창(002371.SZ)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389	3/10	306.36	357.52	16.70%	3.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1,375	1/6	312.15	861.60	176.02%	163.87%
AMD	AMD.US	미국	정보기술	1,084	5/26	467.51	469.56	0.44%	-2.67%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544	1/6	616.10	837.58	35.95%	23.80%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미국	정보기술	324	3/10	108.53	225.26	107.56%	94.08%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미국	정보기술	257	8/4	831.06	800.99	-3.62%	-5.56%
유나이티드 렌탈	URI.US	미국	산업재	100	7/28	1127.91	1137.52	0.85%	-3.20%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87	1/6	103.87	210.63	102.78%	90.63%
알리바바	BABA.US	중국	온라인 서비스	448	8/11	132.32	신규	-	-
북방화창	002371.SZ	중국	반도체 장비	115	8/11	746.10	신규	-	-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텐센트(종목 변경, 7/7~8/11, +4.38%), 바이두(종목 변경, 7/7~8/11, -2.98%)

알파벳 (GOOGL.US)**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3,389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5E)	+29.0%
PER(2025E)	28.70
PBR(2025E)	8.50

- **Investment point**
2QFY26 Review 매출액 1,198억 달러(YoY +24.0%), EPS 9.11 달러 기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8억 달러(YoY +82%), 영업이익 88억 달러로 급증
FY2026 가이드선스 CapEx 중간값 2,000억 달러로 기존 1,85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 **Risk**
AI 수익성 부진으로 AI CapEx 둔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375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76.60
PBR(2026E)	2.3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414.6억 달러(YoY +346%), Non-GAAP EPS 25.11 달러(YoY +1,215%) 기록
DRAM과 NAND 가격 전분기 대비 각각 60% 초반, 80% 중반 상승하며 서프라이즈 실적에 기여
4QFY26 가이드선스 매출액 490~510억 달러, GPM 86%, EPS 30~32달러 제시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AMD (AMD.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084
편입일	5월 26일
EPS증감율(2026E)	+96.9%
PER(2026E)	48.16
PBR(2026E)	9.88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15.4억 달러(YoY +50%), 조정 EPS 1.6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67억 달러(YoY +107%)로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58%까지 확대
3Q26 매출 가이드선스 130억 달러±3억 달러(YoY +41%), 조정 매출총이익률 56%를 제시
Helios-MI400 시리즈 램프업을 통해 AI 가속기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기대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에 GPU, CPU TAM 축소

캐터필러 (CAT.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44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7.4%
PER(2026E)	37.0
PBR(2026E)	20.1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205억 달러(YoY +24%), 조정 EPS 8.17달러로 큰 폭 성장. 조정 영업이익률도 21.9%→ 전년 17.6% 대비 개선되며 판매량 증가와 가격 효과가 동시에 실적을 견인
강한 신규 주문과 수주잔고 확대가 전 사업부로 확산되고 있어 미국 인프라·데이터센터·광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신원 및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324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30.19
PER(2026E)	89.40
PBR(2026E)	19.38

- **Investment point**
1QFY27 매출 13.86억 달러(YoY +26%), 조정 EPS 1.10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성장세 지속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모든 에이전트 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Risk**
AI 기술 개발로 인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 확대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HDD와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저장장치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57
편입일	8월 4일
EPS증감율(2026E)	86.40
PER(2026E)	29.90
PBR(2026E)	31.80

• Investment point

4QFY26 매출 36.3억 달러(YoY +48.5%), 조정 EPS 5.71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
HAMR 기반 Mozaic 플랫폼의 고용량 제품 전환과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FY2027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 1QFY27 가이드는 매출 41억 달러, 조정 EPS 7.30달러 제시

• Risk

AI 인프라 투자 둔화와 클라우드 고객의 재고 조정, HDD 가격 하락 및 HAMR 제품 양산 지연

유나이티드 렌탈(URI.US)**건설·산업·인프라 현장에 일반 및 특수장비 렌탈과 작업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비 렌탈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00
편입일	7월 28일
EPS증감율(2026E)	+16.3%
PER(2026E)	23.5
PBR(2026E)	7.2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44.1억 달러, 조정 EPS 12.7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렌탈 매출은 전년 대비 12.7%,
특수장비 렌탈 매출은 24.8% 증가
대형 프로젝트와 고객 수주잔고 확대를 기반으로 2026년 매출 가이드를 175억~178억 달러, 조정
EBITDA를 79.8억~81.3억 달러로 상향

• Risk

비주거 건설경기 둔화 시 장비 가동률과 렌탈 단가 하락 가능

블룸 에너지 (BE.US)**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87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77.6%
PER(2026E)	123.5
PBR(2026E)	55.0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10.65억 달러(YoY +166%), 조정 EPS 0.78달러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
온사이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블룸 에너지의 에너지 서버가 디지털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서비스 계약 평균 10~15년으로 기존의 6~7년 대비 증가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알리바바(BABA.US)**AI 투자가 클라우드 실적으로 전환되는 구간**

국가	중국
업종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448.8
편입일	8월 11일
EPS증감율(2026E)	-16.60
PER(2026E)	44.11
PBR(2026E)	1.95

• Investment point

AI 수요 확대로 클라우드 성장 가속, AI 관련 제품이 신규 성장동력으로 부상
Qwen 모델-AI Cloud-전자상거래를 연결한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 향후 AI 모델, 에이전트형 서비스
매출 확대 기대

• Risk

CAPEX 확대에 따른 단기 수익성 부담, AI 투자 회수 속도 불확실성

북방화창(002371.SZ)**메모리 증설 및 국산화를 상승, 중국 장비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

국가	중국
업종	반도체 장비
시가총액(조원)	115.8
편입일	8월 11일
EPS증감율(2026E)	45.30
PER(2026E)	98.83
PBR(2026E)	14.03

• Investment point

CXMT 및 YMTC의 대규모 메모리 증설 본격화와 신규 메모리 팹의 장비 국산화를 상승에 따라 핵심
반도체 장비 수주 고성장 지속 전망
핵심 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CAPEX 확대의 직접적 수혜 기대

• Risk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2026년 8월 5일 | Global Equity

스페이스X(SPCX.US)

기업형 스타링크 성장과 AI 인프라가 이끈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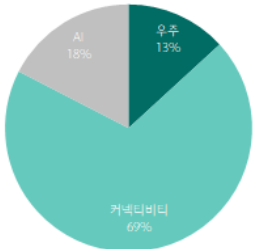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23.89 USD
CP(8.4) 125.3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NASDAQ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다양한 전기통신 서비스
홈페이지	www.spacex.com
시가총액(십억USD)	1,678.4
시가총액(조원)	2,391.1
52주최고/최저(USD)	225.64/104.83
주요주주 지분율(%)	
일론 머스크	11.38
VALOR MANAGEMENT	6.7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2.6) - -
상대	(26.0) - -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4,015	18,674	38,625	71,897
영업이익	466	(2,589)	563	10,882
순이익	791	(4,937)	(4,419)	3,911
EPS(USD)	0.08	(1.69)	(0.35)	0.72
EPS(YOY, %)	(104.7)	적전	적지	흑전
ROE(%)	2.8	(11.9)	(3.3)	2.8
PER(배)	N/A	N/A	N/A	N/A
PBR(배)	73.8	50.9	15.7	14.9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스페이스X, LSE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Q26 실적: 기업& 정부형 스타링크와 AI 인프라 부문 선전으로 시장 기대치 상회

2분기 매출액 78.2억 달러(+92% yoy)로 컨센을 15% 상회했으며 주당 순손실은 -0.09달러로 컨센 (-0.22)대비 적자폭이 59% 작았다. 스타링크 사업의 기업& 정부형 매출(18.1억 달러, +108% yoy)과 AI 인프라 매출 (21.9억 달러, +606%)이 예상치를 각각 53%, 19% 상회하며 선전을 이끌었다. 스타링크 소비자형 부문은 순증 가입자가 170만 증가, 가입자수는 1,200만으로 전년대비 두 배 증가했으나 지역 확장에 따른 ARPU 하락으로 매출액 24.9억 달러(+44%)는 예상치를 5% 하회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스타링크 부문이 16.6억 달러(+79%)로 이익 기여를 확대했고, AI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인식 효과로 영업손실은 -12.6억 달러로 축소하고 조정 EBITDA는 흑자 전환했다. 전사 영업손실 -1.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대폭 축소하며 컨센(-16.4억) 대비로도 개선됐다.

사업부별 주목할 사항

1) 스타쉽 Flight 13에서 열차폐(heat shield) 문제를 사실상 해결했으며 Flight 14부터 스타링크 V3 위성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있다. V3 위성 약 1,000기 확보 시점인 2Q27 전후부터 스타링크 서비스 용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 스타링크 정부 계약이 60억 달러 이상이며, 기업형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대규모 기업형 영업조직을 구축 중이다. 향후 기업형 매출이 소비자형 매출을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2분기까지 총 141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에는 별도로 67억 달러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 구글, 엔트로픽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3분기 후반부터 매출 인식 되기에 하반기 매출 가시성이 높다. 4) 컴퓨팅 용량은 2분기말 1.4GW, 연말 2GW 이상이며 2027년 말에는 10GW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Grok 훈련 비중은 컴퓨팅의 약 10%로 낮추고 외부 클라우드와 추론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 매출 Run-rate 1천억 달러 전망, AI 컴퓨팅 투자 회수기간 1년 미만

스페이스X는 연환산 매출 Run-rate이 12월에 1천억 달러 도달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현재 시장 예상치 대비 격차가 있으나 경영진은 하반기 AI 컴퓨팅 서비스 매출 인식 본격화, Cursor 편입 효과 등으로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3분기와 4분기 Capex는 2분기(184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 2026년 Capex는 약 650억 달러로 추산된다. 공격적인 Capex에 대한 우려에 대해 경영진은 AI 컴퓨팅 투자의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져 Capex가 빠르게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IPO 이후 첫 실적에서 매출과 손익 모두 시장 컨센을 상회하고 AI 컴퓨팅의 빠른 수익화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공격적인 AI 투자 부담, 2)우주 산업 특성 상 기술 실행과 일정 지연 리스크, 3) 실적 발표 후 예정된 대규모 락업 해제 등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2026년 8월 5일 | Global Equity Research

글로벌 산업

AI & 클라우드

클라우드 Big 3, 매출 구도 변화와 AI 수익화 점검 (요약본)

CY2Q26 실적 점검: Big 3 클라우드 성장 재가속과 매출 비중 변화 점검과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성장 재가속 — CY2Q26 AWS +37%, Azure +43%, 구글 클라우드 +82%로 Big 3 성장률이 일제히 상승. 신규 Capa 가동이 곧바로 매출로 전환되는 국면으로,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상회

■ 매출 구도 재편 — 구글이 약진. TTM 기준 Big 4 합산 클라우드 매출 비중은 아마존 43%(-3ppt), MSFT 30%(보합), 구글 22%(+2ppt), 오라클 5%(+1ppt). 전년대비 매출 증가액 비중에서는 격차가 더 빠르게 축소되어 아마존 32%, MSFT 31%, 구글 29%(전년도 구글 21%). 구글 증가액은 284억달러로 AWS 320억달러, MSFT 308억달러에 근접

■ 비중 변화의 원인 — AI 랩 수주가 판도를 결정. '25년 Azure 비중 상승은 OpenAI 선점 효과. '26년 구글 약진은 Anthropic TPU 계약 물량의 가동에 코어 GCP·AI 인프라 성장과 TPU 시스템 외판 매출 인식이 더해진 결과. 아마존의 비중 하락은 프린티어 랩 대형 수주 부재에 기인했으나 Anthropic 약정 확대와 OpenAI 신규 계약으로 수주 열위 해소. MSFT 보합은 OpenAI 독점 종료 영향과 AI 수익화 Copilot, Foundry 등 Azure 밖 세그먼트에 계상되는 구조적 요인도 존재

■ 향후 전망 — 27년까지 구글의 비중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TPU 외판 확대에 따른 매출 믹스 변화는 감안 필요. AWS는 계약 용량 가동과 함께 비중 하락 완화 후 완만한 회복 예상되며 병목은 수요가 아닌 공급. MSFT는 1P(Copilot, Foundry) 수익화 병행으로 Azure향 용량이 제약되어 왔으나, 전체 용량 2배 확장 트랙 위에서 향후 Azure 배분도 확대될 전망

■ 마진 개선 — 영업 레버리지와 가동률 최적화, 자체 칩 활용이 동시에 작용하며 3사 모두 수익성 개선 또는 유지. 구글 클라우드는 마진 최고치 경신

■ 투자와 수요 가시성 — 3사 모두 Capex 가이드선 상향 기조이며 RPO/백로그는 일제히 사상 최대. '27년까지 높은 성장 가시성 유지

2026년 8월 05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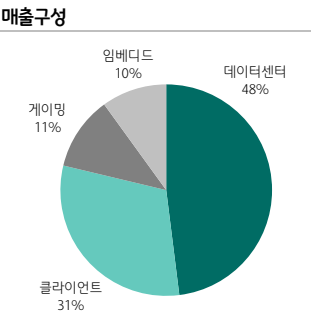
AMD(AMD.US)

FY 2Q26 Review: 성장성 이상 없음

미국

TP(컨센서스) 587.77 USD
CP(08.04) 518.58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Information Technology
주요 영업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홈페이지	www.amd.com
시가총액(십억USD)	845.6
시가총액(조원)	1,202.9
52주최고/최저(USD)	584.73/149.2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81
Blackrock Inc	8.9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0.1 159.0 197.5
상대	(3.2) 146.6 174.7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5,785	34,639	50,172	81,577	
영업이익	6,138	7,768	14,043	26,870	
순이익	5,420	6,831	12,474	24,054	
EPS(USD)	3.31	4.17	7.50	14.33	
EPS(YOY, %)	24.9	26.0	79.8	91.2	
ROE(%)	2.9	7.2	14.5	23.3	
PER(배)	105.9	85.7	69.2	36.2	
PBR(배)	3.5	5.6	11.9	9.7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본업 성장 이상 없음

AMD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실적발표 후 AMD의 시간외주가는 9.2% 급락했다. 급락의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 대규모 투자 부담 영향 등이다. AMD가 제공한 3분기 가이던스를 반영해 4분기 매출을 추정하면 154억 달러인데, FactSet 컨센서스를 1.6% 하회한다. 시장참여자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는 4분기 실적에 대해 낙관하는 데, 데이터센터용 제품 수요가 강하고, AMD의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분기 자본지출이 늘면서 잉여현금흐름이 시장 전망을 13.3% 하회했다. 최근 시장참여자들은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팹리스기업인 AMD의 대규모 투자를 불안해할 수 있지만, 강한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로 판단된다. 수요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원활해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AMD는 4분기와 하반기 데이터센터 매출에 대해서 3분기, 상반기보다 강할 것이라고 했다. 2027년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 개선 및 출하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4분기부터 의미 있게 출하되는 Helios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이익에도 긍정적인 것이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2Q26 실적

AMD의 FY 2Q26 실적은 매출액 115억 달러(YoY +50.1%, QoQ +12.5%), 매출총이익 65억 달러(YoY +95.1%, QoQ +14.1%), 영업이익 31억 달러(YoY +244.9%, QoQ +21.8%), EPS 1.66 달러(YoY +247.2%, QoQ +21.2%) 등이다. 각각 시장의 컨센서스를 2%, 2.8%, 2.9%, 2.7% 상회했다. 이번 분기 호실적도 매출 비중이 확대된 데이터센터 사업부가 견인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요인이다.

매출 총이익률의 YoY 증가율이 큰 이유는 전년 MI 308의 중국향 수출통제 관련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은 34억 달러(YoY +39.7%, QoQ +7.9%)로 확대되고 있다. AI 반도체, 랙스케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고객지원 및 영업조직 확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8.1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초대형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선호 강화 예상

AMD,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실적의 시사점

- AI 투자사이클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의 선호도는 엔비디아와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장참여자들은 더 이상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지출과 관련 인프라 기업들의 외형 성장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투입한 자본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AMD,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의 견조한 실적에도 나타난 부정적인 주가 반응은 시장참여자들의 평가 기준 변화를 보여준다.
- AMD의 2분기 실적은 견조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회사는 하반기와 2027년 AI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시장참여자들은 AMD의 AI 사업 확대가 높은 수익성과 잉여현금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했다. AMD는 AI 사업 확대를 위해 R&D, 공급망 확보, 재고 및 운전자본 투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AMD의 선행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높은 수익성과 잉여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지에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잉여현금흐름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실적 발표 후 하락한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이 AMD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성장 가능성에서 투자 회수 능력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웨스턴디지털도 강한 업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Nearline HDD 공급은 2028년까지 사실상 완판 상태다. 가격 상승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2분기 Nearline Exabyte 출하 증가율은 23%로 경쟁사인 씨게이트의 42%를 크게 하회했다. 원가 절감 폭도 웨스턴디지털은 8%에 그쳐 씨게이트의 16%보다 낮았고 매출총이익률 개선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동일한 수요 환경에서 누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 웨스턴디지털의 출하 둔화는 신제품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고객들의 구매 시점 조정일 수 있다. 업황과 웨스턴디지털의 가격 결정력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같은 산업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쟁사 대비 부진한 실적(출하 증가율, 수익성 등)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업황 자체보다 기업별 실행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했을 여지가 있다. 강한 수요를 실제 이익 증가로 전환하는 능력이 주가 차별화 요인으로 부상한 사례다.
-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은 시장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보여준다. NAND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제한적인 비트 공급 증가는 가격 결정력과 높은 수익성을 지지한다. 6월 분기 매출과 EPS, 매출총이익률도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했다. 9월 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참여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샌디스크의 비트 공급 증가율이 내년에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계약도 2027~2028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 수익성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샌디스크가 필요한 것은 NAND 가격 상승보다 추가적인 실적 상향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시장 기대 이상의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다.
- AMD와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등의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기업별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의 평가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AMD는 AI 투자 확대가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수되는지가 중요하고, 웨스턴디지털은 동일한 업황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물량 성장과 원가 절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샌디스크는 이미 높은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추가 실적 상향 가능성이 요구된다.
- 기업의 가치는 외형 성장 자체보다 투입한 자본에서 얼마나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자본 수익률(ROIC)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될 때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 같은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의 수혜를 받더라도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업과 적은 추가 자본으로 높은 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향후 AI 업종에서도 추가 투자자본 수익률과 이익 전환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상대적인 강점은 분명하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자본지출이 GPU와 네트워킹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만 펍리스 구조로 매출 증가만큼 투자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AI 수요 증가를 높은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 잉여현금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높은 자본수익률로 이어진다는 점은 실적에서 입증했다.
-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도 대규모 AI 투자의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면서 투자자본이 빠르게 증가했다. 초기에는 AI 수익화가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Azure, AWS, Google Cloud의 높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증명했다. AI 투자가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AI 인프라 투자와 수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시장참여자들이 모든 AI 인프라 기업에 동일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수요 가시성과 점유율 확대, 가격 결정력과 공급망 내 병목 지위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아도 높은 추가 투자자본 수익률과 이익 전환 능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확대될 수 있다.
- AI 투자 확대의 높은 수익성이 이미 검증된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투자의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AI 인프라 기업들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 대비 이익 증가, 경쟁사 대비 실행력, 높은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AI 투자사이클은 지속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자본지출 규모와 수혜 여부에서 투자한 자본을 얼마나 높은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2026년 8월 7일 | 글로벌 리서치

산업 Issue

미국 태양광

[Section 232 시사점] 명단에 없는게 명단

모든 밸류체인에 도입된 MIP(최저수입가격)와 증가세 15%

8월 6일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대한 Section 232가 최종 확정되었다. 2025년 7월 1일 조사 개시 이후 약 2차례 지연된 후의 발표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 12월 4일부터는 소비를 위해 새로 들어오는 제품뿐 아니라 기존 창고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도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s)이 적용된다. 덤핑성 판매를 금지해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가격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을 만들고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IP는 (1) 폴리실리콘 21달러/kg, (2) 잉곳 및 웨이퍼 100달러/kg, (3) 셀 0.22달러/W, (4) 모듈 0.38달러/W로 태양광 모든 밸류체인에 적용되었다. 만약 수입 물품의 신고가액이 MIP보다 낮은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는 신고가액과 MIP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별개로 15%의 증가세(Ad Valorem)가 이중으로 부담된다. 이를 전 로이터가 보도했던 방향(가격하한+관세)과 동일하나 MIP의 기준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약 3~4배 높고 신규 수입품뿐 아니라 기존 재고에도 MIP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

한국, 일본, 대만, EU 등은 세율 합계 최대 15%

미국은 이번 Section 232 최종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배제하기보다는 우방국들에게 예외적으로 혜택 조항을 두어 중국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은 Section 232 관세와 기존 HTSUS 관세율의 합계를 15%로 제한해 원래 관세를 내고 있었으면 새로운 관세는 그만큼 덜 걷는 방식이다. 영국은 기준을 10%로 한번 더 완화했다. 온쇼어링 대상 제품들에 대해서는 Section 232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건은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다.

미국 대기 물량의 계약 촉진 시작될 것

트럼프는 취임 이후 다양한 규제를 통해 미국의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OBBBA 내에도 PFE(중국을 포함한 금지외국단체) 조항을 두어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했으며, AD/CVD를 통해 동남아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 퍼스트솔라는 7월 30일 진행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Section 232를 관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Section 232 최종 발표로 계약이 촉진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물량 1.8GW는 마감 공정을 미국 내로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026년 8월 10일 | Global Equity

지멘스 (SIE.GR)

5년간 AC+DC의 하이브리드 배전 인프라 전망

3QFY26: 역대 최고 수주 달성

3QFY26('26년 6월 결산) 매출액 208억 유로(YoY +7%), 조정 EPS 2.93유로(+12%)로 컨센(206억, 2.59)을 모두 상회했다. 수주는 279억 유로(YoY +13%)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데이터센터 부문 수주가 3분기 누적 60억 유로로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스마트인프라(SI) 수주가 최초로 80억 유로(+40%)를 넘어선 데에서 기인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며 미주 지역에서 11% 성장했다. 인도에서도 13% 성장을 반영해 아시아와 호주 지역에서도 10% 성장했다. 미국에서의 관세 환급 효과와 지멘스 헬시니어스 부문의 효과가 수익성을 뒷받침하며 지멘스 산업 부문 이익은 사상 최대인 35억 유로를 달성했다.

스마트인프라 미국 수주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영향으로 YoY +81%

디지털인더스트리(DI) 매출 49억 유로(+7%)로 컨센에 부합했다. AI 인프라 확충 수혜 업종 이외에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개선세를 확인했다. 중국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유럽의 가동률은 여전히 낮다. DI는 FY26년 매출성장률은 +7~10%, 이익률은 17~19%를 전망하며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4분기는 DI 수주는 예외적으로 EDA 수주가 많았던 FY25년의 역기저 효과로 YoY flat 수준을 전망했다. 스마트인프라(SI) 매출은 64억 유로(+12%)로 컨센(61억)을 상회했다. 전기제품 수주 +58%, 전력화 사업 +55% 성장하며 수주는 사상 최고치인 80억 유로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매출 증가와 가동률 개선에 따른 규모의 경제, 지속적 생산성 향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아직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격 정책에서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하반기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수주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영향으로 +81% 급증했다. 수주잔고에 기반한 높은 가시성으로 FY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0~11%로 중간값 기준 150bp 상향 조정했다.

800V DC 프로젝트는 2027년 예상, 앞으로 5년간은 AC/DC 공존

지멘스는 HD현대와의 협력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조선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MASGA의 조율 기구인 미국-한국 조선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800V DC 로드맵은 일괄적인 전면 교체가 아닌 향후 4~5년에 걸친 단계적인 전환 과정이며 초기에는 AC와 DC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브라운필드와 신규 설치하는 그린필드 프로젝트 모두에 해당한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7년을 예상했다. Infineon의 SiC 전력 모듈을 SST에 통합하고 있다. 12M FWD PER 25.0배로 글로벌 복합기업 평균(29.3배) 대비 낮으며 경쟁사 대비 산업자동화(DI) 비중이 높아 업황 개선시 추가 탄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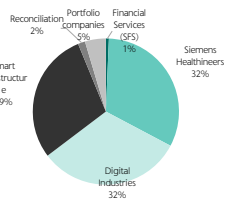
독일

TP(컨센서스) 304.77 EUR
CP(8.7) 280.20 EUR

Key Data

국가	독일
상장거래소	Xetra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복합 기업
홈페이지	new.siemens.com
시가총액(십억EUR)	219.1
시가총액(조원)	196.5
52주최고/최저(EUR)	291.1/196.5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6.99
CAPITAL GROUP	5.2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5 9.1 20.4
상대	(2.3) 3.9 11.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78,914	78,914	83,006	88,808
영업이익	9,595	9,595	12,333	14,177
순이익	9,620	9,620	8,340	9,578
EPS(EUR)	13.0	10.1	11.2	12.9
EPS(YOY, %)	0.0	(22.2)	11.1	14.9
ROE(%)	16.8	17.0	13.5	14.6
PER(배)	17.4	23.8	25.0	21.8
PBR(배)	2.8	2.9	3.3	3.0
배당률(%)	2.9	2.3	2.0	2.1

자료: 지멘스, LSEG 시장 예상지,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026년 8월 7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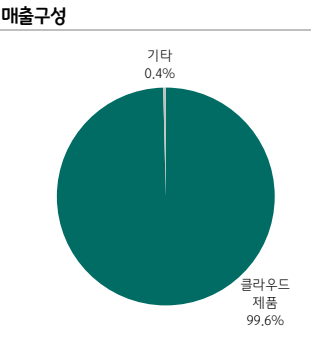
캠브리콘(688256.CH)

올해 실적 최대 변수는 공급망/메모리로 인한 출하 지연

중국

TP(컨센서스) 1,693.25 CNY
CP(8.5) 1,136.90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Shanghai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cambricon.com
시가총액(십억CNY)	719.8
시가총액(조원)	151.4
52주최고/최저(CNY)	1620.0/449.7
주요주주 지분율(%)	
Chen Tianshi	28.35
BJ ZHONGKE SUANYUAN ASSET	15.5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6.0) 60.1 144.0
상대	(11.9) 64.9 137.2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174	6,497	18,174	33,502	
영업이익	(498)	2,063	6,005	12,272	
순이익	(452)	2,059	5,798	11,264	
EPS(CNY)	(0.7)	3.3	10.2	20.3	
EPS(YoY, %)	(47.3)	(552.3)	208.1	99.2	
ROE(%)	(8.2)	23.9	38.1	48.4	
PER(배)	-	275.0	112.4	56.4	
PBR(배)	50.5	48.3	37.2	22.4	
배당률(%)	0.0	0.1	0.2	0.3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하반기 MLU580/690 대량 양산으로 매출액 급증 기대

화웨이와 더불어 중국의 2대 AI 반도체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한 캠브리콘의 2Q26 매출은 30억위안(YoY +70%/QoQ +4%), EPS는 2.1위안(YoY +90%/QoQ +30%)가 예상된다. 중국 내 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캠브리콘의 분기 매출 규모는 2025년 10억위안대, 2026년 상반기 20~30억위안대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기존 최상위 제품인 MLU580의 현지 공급망 대량 양산 돌입과 차세대 제품 MLU690의 출시로 분기 매출 규모가 70억위안 이상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캠브리콘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현지 공급망의 양산 안정화 여부, 2)메모리 수급 제약 등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력 제품 라인인 MLU500 계열의 590 제품은 TSMC가 기존 계약 물량 생산 마무리 단계로 추정되고, 현지 생산 중인 580 제품은 SMIC가 하반기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나, 현재 MLU580/590 출하가 모두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확보한 대규모 수주의 매출 전환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딜 가능성이 있다.

중국 AI 반도체 경쟁은 개별 칩 성능에서 시스템 단위로 이동

중국의 AI 가속기 시장 경쟁은 개별 칩 성능에서 시스템 단위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강력한 시스템 설계, 전력 인프라, 정책 지원 등을 기반으로 중국 AI 칩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개최된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대부분의 중국 AI 칩 기업들은 128개 이상의 AI 가속기를 연결한 대규모 AI 컴퓨팅 솔루션을 공개했고, 중국 AI 반도체는 개별 칩 기준으로 미국보다 약 2세대 뒤쳐져 있지만 멀티다이 설계, 첨단 패키징, 랙 스케일 시스템 아키텍처, 광 네트워킹, SW/HW 공동 최적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능 격차를 좁히고 있다. AI 수요가 추론과 가동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성능의 칩보다 비용 효율성, 제품 접근성이 좋은 AI 칩 공급업체가 중국 CSP 등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 중국의 AI 반도체는 현재 수입 가능한 엔비디아 제품(H200/H20)보다 총소유비용(TCO)이 30~50% 수준으로 상당히 낮지만 추론 워크로드에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토큰당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AI 칩 국산화율은 2025년 약 41%에서 2030년 70~80%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캠브리콘은 중국 AI 칩 팹리스 중 최선호 기업

올해 주력 제품 출하 지연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캠브리콘의 실적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반기 경쟁사들과 신제품 출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캠브리콘이 중국 CSP와 국유기관 대상으로 AI 칩을 공급하며 축적해온 레퍼런스가 제품 신뢰도와 고객 인증 측면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향후 신규 고객 확보와 대형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근아	선임연구위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이철현	선임연구위원	Global Quant	7723	lch2678
	김성온	선임연구위원	중국분석	7520	seongeunk
	손일수	연구위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3629	ilsooson

채널전략팀

채널전략팀	김두언	팀장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선임연구위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위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최욱	연구위원	국내외 주식 시장 RA	7477	wookchoi

해외주식분석실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승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위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장치영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ETF	3669	chiyoung.jang
	안기량	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an
	송종원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신민건	연구위원	글로벌 ETF RA	3269	mingun.shin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